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22년 8월 17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47천 km ² (한반도의 약 4.3배)	인구 60백만 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703억 달러 (2021 ^e)	1인당GDP 1,177달러 (2021 ^e)	통화단위 Tanzanian Shilling (TZS)	환율(U\$기준) 2,298 (2021 ^e)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 간 또는 종교 간 마찰이 적어 내란과 테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금,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더해 킬리만자로 산,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일원으로 관세 동맹, 공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역내 평화 유지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역내 라이벌인 케냐와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4. 30. 수교 (북한과는 1965. 1. 4. 수교)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5), 문화협정('06), 무상원조협정('14), 외교관·관용·공무사증면제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38,020	151,237	200,128	의약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수입	36,708	47,170	25,889	기호식품, 동제품, 곡실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3월 말 누계, 신규법인수) 35건, 10,68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7.0	7.0	4.8	4.9	4.8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4	3.3	3.7	4.4
재정수지/GDP	-1.9	-2.0	-2.5	-3.3	-3.3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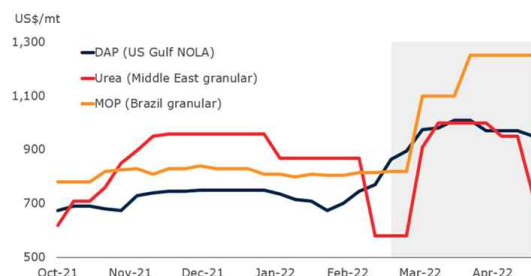
산업 전반의 고른 성장을 통해 2021년 4.9%의 경제성장 추정

- 2021년 탄자니아 경제는 농업, 서비스업, 제조 및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모두 고르게 성장한 결과 4.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농업)** 탄자니아 노동인구의 65%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 부문은 탄자니아 GDP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현대화 정책 등을 통한 생산량 증대로 2021년 전년 대비 11% 성장함.
- **(서비스업)** 탄자니아 GDP의 약 36%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2021년 전년 대비 10% 성장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전 세계적인 이동제한 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탄자니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8.6% 증가한 922,692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업(GDP의 17% 이상 차지) 회복의 영향이 컸음. 아울러, 탄자니아 외화 수입(收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업의 회복으로 동 부문의 2021년 외화 수입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함.
- **(제조 및 건설업)** 탄자니아 GDP의 약 29%를 차지하는 제조 및 건설업 부문은 표준궤 철도 사업(SGR),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 댐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2021년 전년 대비 15% 성장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2022년 4.8%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료 국제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2022년 탄자니아의 농업 부문의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 재개에 따른 운송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탄자니아로의 러시아인 관광객 유입(탄자니아 관광객의 8%를 차지, 케냐에 이어 2위)을 감소시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역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인해 탄자니아의 주요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표준궤 철도 사업 및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 댐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 및 건설업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여 2022년 4.8%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국제 비료가격 추이(2021년 10월~202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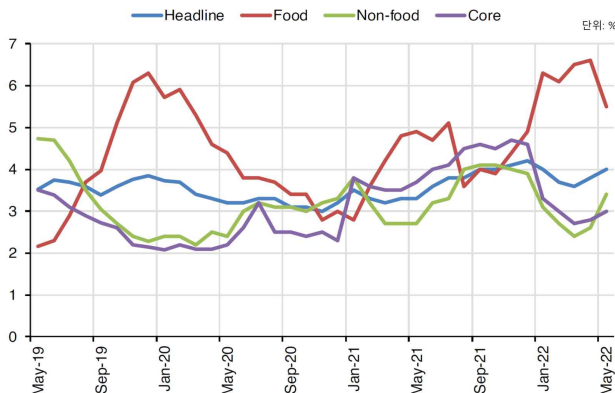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회색 음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시기를 의미)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목표치(5%) 이내를 유지할 전망

- 탄자니아는 국제적인 식료품 공급 부족,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 3.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기인하여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2022.8.2.자 기준)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밀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5% 이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로 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식음료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그 외 연료비 및 운송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 탄자니아는 전체 밀 수입의 61.1%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하고 있음.

[그림 2]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19년 5월~2022년 5월)



자료: Bank of Tanzania (* Headline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그림 3] 밀 국제 가격 추이(2020년 1월~2022년 6월)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4] 세부 항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21년 1월~2022년 5월)

	Headline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Clothing and footwear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other fuels	Furnishings, household equipment and routine household maintenance	Health	Transpo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creation, sport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s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 services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Personal care, social protection and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Weight (%)	100	28.2	1.9	10.8	15.1	7.9	2.5	14.1	5.4	1.6	2.0	6.6	2.1	2.1
2021 - Jan	3.5	2.8	1.8	3.7	7.3	3.1	2.2	0.9	2.4	1.6	0.9	3.0	0.1	2.4
Feb	3.3	3.6	2.0	4.0	4.4	3.2	2.8	1.0	2.0	2.1	1.1	4.1	0.3	2.8
Mar	3.2	4.3	1.9	4.5	3.7	3.2	2.9	0.5	2.1	2.2	1.2	4.9	0.3	2.8
Apr	3.3	4.8	2.7	4.6	4.1	3.1	2.7	0.2	1.8	2.3	1.2	5.4	0.3	2.7
May	3.3	4.9	2.5	4.4	3.5	2.8	2.6	1.2	1.7	2.3	1.1	5.4	0.3	2.6
Jun	3.6	4.7	1.9	4.4	3.2	2.9	2.7	3.8	1.9	2.3	1.3	5.6	0.3	2.0
Jul	3.8	5.1	1.9	4.5	3.5	2.9	2.6	4.3	1.8	2.2	1.1	4.9	0.3	2.7
Aug	3.8	3.6	2.4	4.7	4.2	3.1	2.8	5.7	1.8	2.3	1.1	5.0	0.3	2.8
Sep	4.0	4.0	2.4	4.8	4.1	3.2	2.8	5.9	1.8	4.1	1.1	5.0	0.3	2.8
Oct	4.0	3.9	2.5	4.9	3.8	3.2	2.9	5.6	1.9	3.7	1.1	5.0	0.3	2.9
Nov	4.1	4.4	2.7	5.5	4.0	3.6	3.0	5.4	1.4	3.8	1.1	5.3	0.3	3.5
Dec	4.2	4.9	2.2	4.5	3.9	4.1	2.9	5.9	1.5	3.8	1.1	4.9	0.3	3.5
2022 - Jan	4.0	6.3	1.9	3.1	3.5	3.0	1.9	4.4	1.3	1.9	1.0	3.7	0.3	2.2
Feb	3.7	6.1	1.8	2.8	3.5	3.0	1.3	3.7	1.2	1.4	0.3	2.7	0.2	2.1
Mar	3.6	6.5	1.8	2.4	3.2	2.8	1.3	2.9	1.0	1.1	0.2	2.4	0.2	2.5
Apr	3.8	6.6	1.2	2.3	3.9	2.8	1.3	3.9	0.6	1.0	0.2	2.1	0.2	2.4
May	4.0	5.5	1.2	2.1	4.3	3.3	1.5	7.2	0.7	1.1	0.3	2.0	0.2	2.6

자료: Bank of Tanzania (* Headline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국내경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는 탄자니아 실링화의 대미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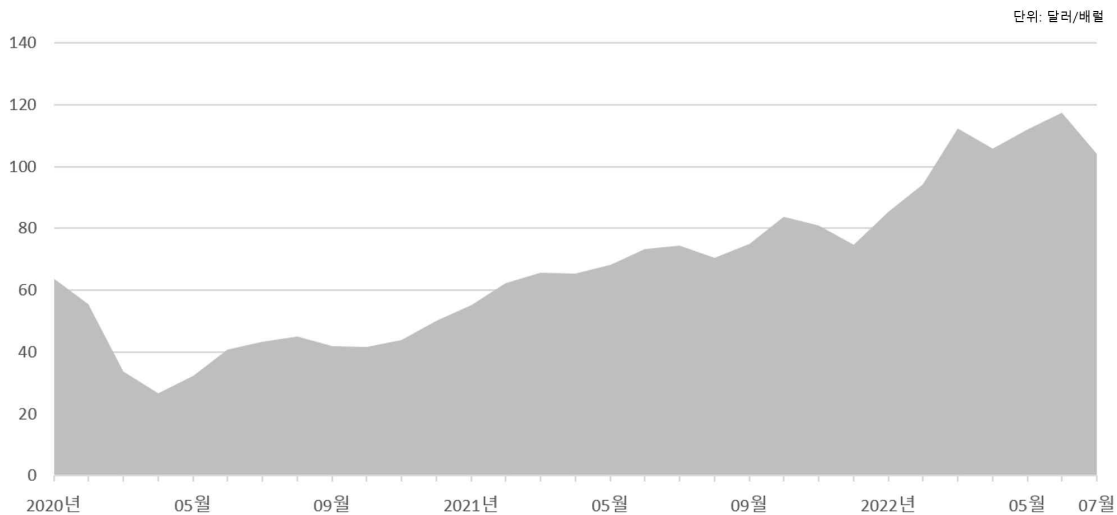
- 탄자니아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는 탄자니아 실링화(Tanzanian Shilling, TZS)의 대미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함께 IHS Markit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요 수입품인 정제유의 수입가격 상승이 탄자니아의 외화 유출을 확대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 탄자니아의 정제유 수입 규모는 2010~20년 평균 총 상품수입액의 27%에 달하며, IHS Markit과 EIU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과 함께 2022년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탄자니아 실링화의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1] 탄자니아 실링화의 연평균 대미 환율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EIU	2,294	2,298	2,309	2,335	2,358
IHS Markit	2,294	2,298	2,310	2,331	2,354

자료: EIU, IHS Markit

[그림 5] 국제유가 추이(2020년 1월~2022년 7월, 브렌트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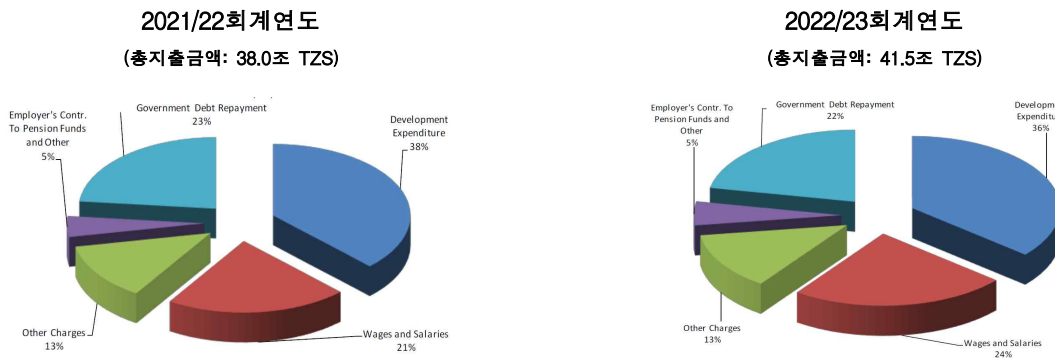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자료 재가공

국내경제

재정수지는 2021년에 공적채무 원리금 상환, 인프라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인해, 적자 폭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도 사회개발 투자 등으로 적자 지속 전망

- **(2021년)** 탄자니아는 2021/22회계연도(7.1~6.30) 기준 재정지출의 23%를 공적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2021년 공적채무이자지급액/재정수입 비율도 11.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표준궤 철도 사업 및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 댐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등으로 인해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故마구풀리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존재를 부정하고 코로나19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2021년 3월 취임한 하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대응 계획 (Tanzania Covid-19 Response Plan, TCRP)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22년)** 탄자니아는 공적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인프라를 포함한 교육, 보건 등의 사회개발 투자를 적극 실시함에 따른 지출 확대로, 경기 활성화로 인한 내수 증가(23.7조 TZS → 27.5조 TZS, IMF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2년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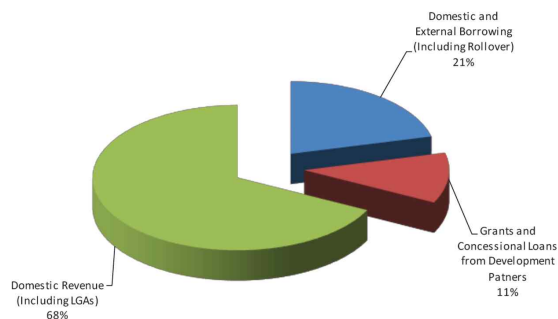
[그림 6] 탄자니아의 회계연도별 및 부문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



자료: Tanzania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탄자니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족분을 유·무상원조 및 대내외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21/22회계연도에 이어 2022/23회계연도에도 유·무상원조 및 대내외 차입을 통해 소요 예산의 32%를 조달할 계획임.

[그림 7] 탄자니아의 2021/22 & 2022/23회계연도 재정예산 조달 계획



자료: Tanzania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2021/22 & 2022/23회계연도의 자원 조달 비중 동일)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2,262	-1,512	-1,122	-2,445	-3,405
경상수지/GDP	-4.0	-2.5	-1.8	-3.5	-4.4
상 품 수 지	-4,190	-3,415	-1,517	-3,300	-4,210
상 품 수 출	4,293	5,378	6,372	6,717	7,304
상 품 수 입	8,483	8,793	7,889	10,017	11,514
외 환 보 유 액	4,940	5,476	4,673	5,759	5,468
총 외 채	21,210	24,164	25,538	28,038	30,261
총외채잔액/GDP	37.4	39.7	39.7	39.9	39.1
D.S.R.	14.1	14.6	19.0	18.4	18.8

자료: IMF, EIU

관광업의 부분 회복을 자본재 및 정제유 수입 증가가 상쇄하여 2021년 경상수지 적자 확대

- 글로벌 이동제한 조치 완화 및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등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로 2021년 탄자니아의 서비스수지 흑자는 8.9억 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개선되었으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입(31.4억 달러 → 38.4억 달러) 및 정제유 수입(12.8억 달러 → 20.8억 달러)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15.2억 달러 → -33억 달러)되어 2021년 GDP 대비 -3.5%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표 2] 탄자니아 주요 상품/서비스 수출·수입 비교(2020~21년)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액
상 품 수 출	6,061	6,391	330
전통품목(커피, 차 등)	808	628	-180
비전통품목	5,253	5,763	510
광물	3,369	3,130	-266
(금)	2,958	2,743	-214
공산품	909	1,213	305
기타	976	1,447	471
서 비 스 수 출	2,184	3,152	969
운송업	1,282	1,416	134
관광업	715	1,402	688
기타	187	334	147

상품 및 서비스 수입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액
상 품 수 입	7,832	10,003	2,172
자본재	3,139	3,836	697
중간재	2,230	3,250	1,021
정제유	1,283	2,084	802
기타	947	1,166	219
소비재	2,461	2,915	454
기타	2	2	-
서 비 스 수 입	1,319	1,718	399
운송업	607	810	203
관광업	204	239	35
기타	508	668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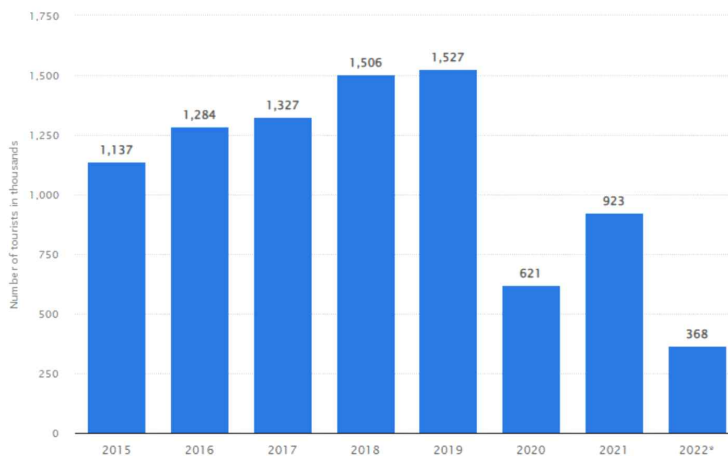
자료: Bank of Tanzania (※ 산정 기준 및 적용시점 환율 등의 차이로 IMF 수치와 차이 존재)

대외거래

관광업 회복 지연,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입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22년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전망

- 탄자니아는 공산품 및 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입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정제유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며, 아울러 관광업의 회복 지연 등으로 2022년 GDP 대비 -4.4%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업이 2021년 부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은 관광업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 관광업 수출액 규모는 2019년 26억 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7억 달러로 급감한 후 2021년 1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8] 탄자니아 방문 관광객 추이(2015~2022년 4월)



자료: Statista (Number of tourists arriving in Tanzania from 2015 to 2022)

외채상환능력

만성적인 경상·재정수지 적자로 외채상환 부담은 높은 수준을 기록 중

- 탄자니아는 파리클럽,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주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외채 탕감을 받은 바 있으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¹⁾에 따라 3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은 데 이어 2006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²⁾에 따라 37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음.

1) HIPC Initiative: 고채무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39개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스케줄링과 탕감을 실시하는 채무구제 프로그램

2)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HIPC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졸업(Exit)한 국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4곳이 채무 전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

외채상환능력

- Bank of Tanzania에 따르면 롤오버 금액을 포함한 탄자니아의 외채차입 규모는 2020/21회계연도 5.0조 Tanzanian Shilling(TZS), 2021/22회계연도 6.2조 TZS 기록 후 2022/23회계연도에는 6.7조 TZS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순외채증가액도 2020/21회계연도 2.5조 TZS, 2021/22회계연도 3.2조 TZS, 2022/23회계연도 3.8조 TZS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21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80억 달러(GDP의 39.9%)로 추정되며, 2022년 말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303억 달러(GDP의 39.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여 2018년 14.1%였던 D.S.R.은 총수출 증가에도 2021년 18.4%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1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탄자니아 D.S.R. 추이(2018~22년)

단위: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	2022년 ^f
D.S.R.(%)	14.1	14.6	19.0	18.4	18.8
외채원리금상환액 (총 외 채 잔 액)	1,197 (21,210)	1,439 (24,164)	1,645 (25,538)	1,834 (28,038)	2,077 (30,261)
총 수 출 액	8,463	9,871	8,667	9,972	11,043

자료: IMF, EIU, OECD

2021년 9월 IMF는 탄자니아의 외채위험을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상향

- IMF는 탄자니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부문 수출 감소로 인해 외채원리금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어 2021년 9월 탄자니아의 외채위험을 '낮음'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함.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수출 감소에 기인한 외채상환능력 저하는 탄자니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었으며, 탄자니아는 재정수입 개선 노력과 함께 가능한 경우 양허성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함.
- IMF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기구 및 공적 양자간 채권자는 2019/20 회계연도 기준 탄자니아 공적외채의 70%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민간 채권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신규 집행액 기준 민간 채권자의 비중은 2020/21회계연도에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IMF는 2021년 9월 탄자니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Rapid Credit Facility(RCF) 및 Rapid Financing Instrument(RFI)를 통해 총 567.2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2022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탄자니아의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을 목표로 Extended Credit Facility(ECF)를 통해 1,046.4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하였음. IMF의 자금 지원은 다른 국제금융기구 등의 재정 지원을 유발하여 탄자니아의 외채상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RCF: 저소득 국가의 긴급한 국제수지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양허성 차관 지원제도로 무이자로 제공되며 상환기간은 5년 5개월~10년임.

RFI: 자연재해 혹은 상품 국제가격 충격 등으로 국제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금융지원제도로, 저리에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임. 수원국의 국공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함.

ECF: 장기화된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양허성 차관제도로, 최초 대출기간은 3~5년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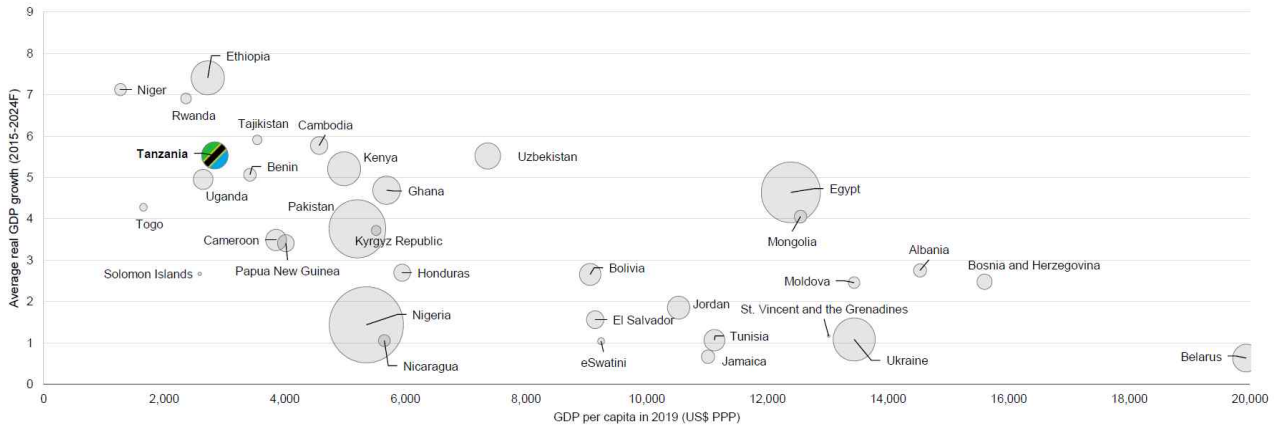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

- 탄자니아 경제는 2011~19년 중 평균 6.7%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4.8%, 2021년 4.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3,104달러로, IMF가 발표한 193개국 가운데 165위에 불과함. Moody's는 탄자니아의 낮은 소득수준이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대응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함.

※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2021년 기준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131,875달러), 2위는 싱가포르(116,487달러)이며 한국은 30위(48,578달러)임

[그림 9]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개인의 실질 구매력 수준



자료: Moody's [※ 원의 크기: 2019년 명목 GDP 규모(단위: 십억 달러)]

단일 상품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및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 2021년 탄자니아의 상품수출은 크게 커피, 캐슈넛, 담배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수출 부문(상품수출의 10%)과 광물 및 공산품으로 구성된 비전통적 수출 부문(상품수출의 90%)으로 구분됨(Bank of Tanzania).
- 광물은 비전통적 수출 부문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 상품 수출의 43%이자 광물 수출의 88%를 점유하여 금 국제 가격 변동이 상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한편,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농업 부문은 탄자니아 GDP의 약 27%를 점유하며, 노동인구의 65%가 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최근의 기후 변화 및 증가하는 수자원 수요 등으로 주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탄자니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기술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필요

- 탄자니아의 제조업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단순 제조업 분야(농산물, 가죽, 섬유, 목재 등)에 국한되는 실정임.
- 탄자니아 인력 중 높은 숙련도를 가진 기술인력 비중은 3%(중소득 국가 평균 10%)에 불과하고, 낮은 숙련도를 가진 인력 비중이 80% 이상(중소득 국가 평균 50%대)으로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인력 육성이 시급함.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은 2019년 탄자니아의 기술인력 숙련도가 141개국 중 126위라고 발표함.

성장잠재력

금, 니켈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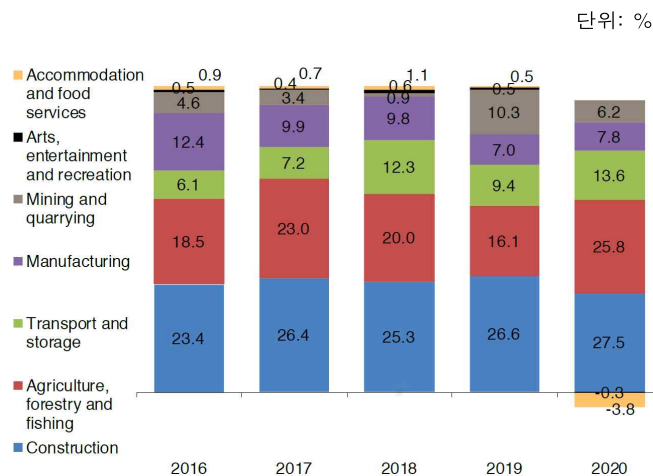
- 탄자니아는 금, 다이아몬드, 니켈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다양한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상품수출의 43%를 차지하는 금의 확인매장량은 4,500만 온스로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말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 국토 면적의 20%에 불과하여 향후 추가 발굴 가능성이 큰 편임.
-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이 매장(152만 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Kabanga 광산 개발사업도 추진 중임. 탄자니아는 영국 광산 회사(LZ Nickel Ltd)와 2021년 1월 니켈 채굴 사업계약을 체결, 동 사업을 통해 향후 연평균 6.64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함.
- 탄자니아는 천연가스를 주요 수출자원으로 인식하여 정부 주도의 천연가스 개발 노력도 확대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총 57조 입방피트로, 하산 대통령은 2021년 5월 '케냐-탄자니아 가스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린디(Lindi) 지역에 30~4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임. 탄자니아는 동 사업을 위해 2022년 6월 영국의 Shell 및 노르웨이의 Equinor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동 사업에 대한 최종투자 결정은 2025년 즈음 이뤄질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 시 2029~30년 LNG 생산 및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성장잠재력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다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하위 중소득국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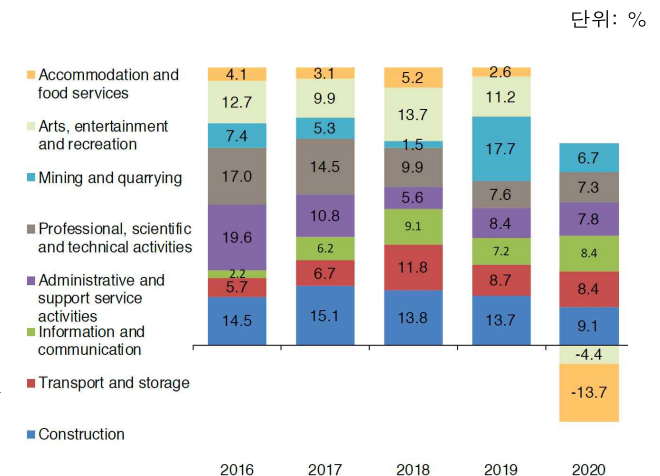
- 탄자니아는 건설업, 농업, 광업, 수송 및 창고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0년 명목 GDP 기준 산업구조가 서비스업(36%), 제조업 및 건설업(29%), 농업(27%) 등으로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음.
- 각 산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기반으로 2011~19년 중 평균 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20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함.
- 이처럼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탄자니아는 정부의 목표를 5년 앞당겨 2020년 7월 1일 저소득국에서 하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세계은행 기준)에 성공함.

[그림 10] 탄자니아의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 비중(2016~20년)



자료: Bank of Tanzania(※ 2015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 11] 탄자니아의 산업별 성장률(2016~20년)



자료: Bank of Tanzania(※ 2015년 불변가격 기준)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

- 관광업은 탄자니아 GDP의 17% 이상, 외화 수입(收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2019년 15만 명에서 2020년 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2020년 이후 관광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곳*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향후 코로나 19 백신 보급 확산과 글로벌 이동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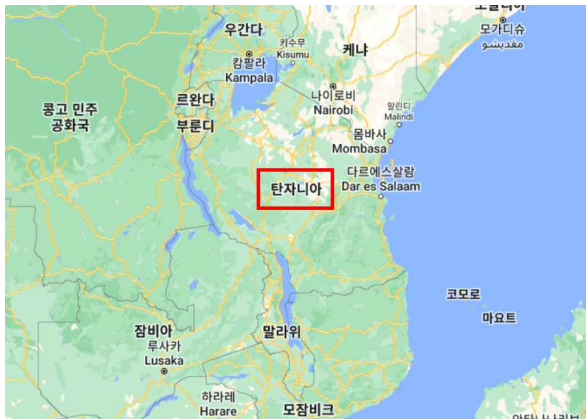
*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응고롱고로, 셀루스 동물보호구역, 잔지바르 석조도시, 콘도아 암석화 유적, 킬와키시와니 및 송공 음나라 유적

성장잠재력

인도양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내륙국의 무역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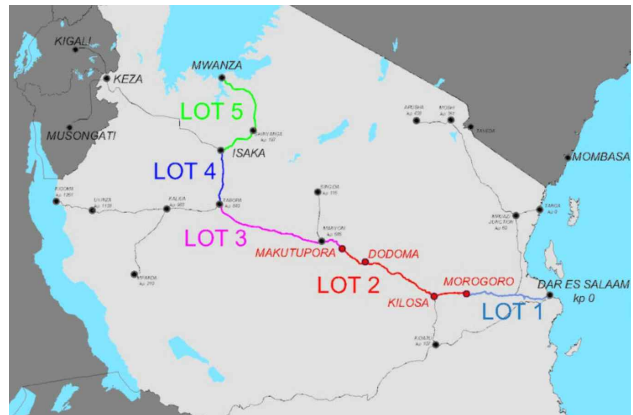
- 탄자니아는 인도양과 접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부룬디,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등 6개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아프리카 중부의 물류거점이 되고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내 2번째 규모의 항만이자 인도양에 인접한 다레살람항을 포함하여 바가모요항, 탕가항을 확장·개발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임.
 - * East African Community: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7개국으로 구성(2022년 7월 기준)
- 아울러 총 연장 2,500km의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건설을 진행 중으로, 건설 완료 시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등 인접국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 동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자니아의 가장 큰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3.5억 달러가 투입된 1단계 다레살람-모로고로 구간은 2022년 12월 완공 예정임.
 - * 1단계(202km): 다레살람-모로고로, 2단계(348km): 모로고로-마쿠토포라, 3단계(294km): 마쿠토포라-타보라, 4단계(130km): 타보라-이사카, 5단계(341km): 이사카-므완자

[그림 12] 탄자니아의 지리적 위치



자료: Google Map

[그림 13] 탄자니아의 단계별(LOT) SGR 노선



자료: Engineering News-Record, 사진제공 Yapi Merkezi

정책성과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책 지속

- 인프라 구축은 현재 탄자니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이 추진했던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①표준궤 철도 건설, ②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 댐 건설, ③우간다-탄자니아를 잇는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④도도마 Msalato 국제 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확대/현대화 사업 등이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는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정책성과

하산 대통령 취임 후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책 실시

- 임기 중인 2021년 3월 17일 사망한 존 마구폴리 前대통령은 코로나19의 존재를 부정하며 서방에서 제조된 백신을 탄자니아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약재를 달인 증기를 흡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탄자니아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직원들을 추방하였음. 아울러, 2020년 5월부터 공식적인 코로나 확진자·사망자 집계를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신의 은총으로 코로나를 퇴치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함.
- 전임 정부의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미아 솔루후 하산 대통령은 前대통령과 대조적으로 모든 공식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코백스 가입을 통한 백신 조달 및 보급 계획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계획(Tanzania COVID-19 Socioeconomic Response Plan, TCRP)을 수립하는 한편, IMF 앞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음.
- IMF는 2021년 9월 탄자니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응을 위해 Rapid Credit Facility(RCF) 189.08백만 달러 및 Rapid Financing Instrument(RFI) 378.1백만 달러 등 총 567.25백만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동 자금을 전부 무이자로 전환(RFI 승인액을 RCF로 전환) 해주는 등 탄자니아 정부의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14] TCRP 소요 예산

	Estimated costs	
	US\$ (m)	% of GDP
Health	387.7	0.5
National Deployment and Vaccination Plan	189.0	0.3
National COVID-19 Response Plan	198.6	0.3
Verified Arrears	231.1	0.3
Transfers to Zanzibar	215.3	0.3
Tourism	192.2	0.3
Support to SMEs	169.0	0.2
Water	137.3	0.2
Education	84.8	0.1
Coordination and Administration	57.5	0.1
Social Protection	35.6	0.05
Youth, women and disabled empowerment	34.9	0.05
Agriculture Inputs Subsidies	21.6	0.03
Total	1,567.0	2.2

자료: IMF

정책성과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비준으로 교역 증대 및 경제성장 기대

- 2021년 9월 AfCFTA 비준 동의안이 탄자니아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탄자니아는 2022년 1월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AUC)에 비준서를 기탁함.

※ 2022년 6월 말 기준 아프리카연합 55개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 중 탄자니아를 포함한 43개국이 AUC에 비준서를 기탁함.

- AfCFTA는 아프리카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프로젝트로 인구 12억 명, GDP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이며, 단일시장 규모로는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임.
- 유엔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UNECA)는 AfCFTA 발효 시 교역 증대 및 경제 활성화로 인해 탄자니아가 약 4%의 경제성장 및 23~32%의 수출 증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탄자니아 외교부는 새로운 단일 시장이 형성되면 현재 탄자니아 수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동아프리카 허브로서의 탄자니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하였음.
- 반면 케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이미 발전된 물류 유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들과 경쟁할 경우 투자 유치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탄자니아는 AfCFTA를 통해 교역 증대 및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탄자니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 규정 등 다수의 쟁점들이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으로 AfCFTA의 실제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³⁾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이나, 적극적인 사회 개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탄자니아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프라(121위), 정보통신기술 도입 수준(133위), 숙련도(126위), 혁신역량(123위) 분야가 특히 열위함.

※ 주변국 글로벌 경쟁력 순위: 케냐 95위, 가나 111위, 에티오피아 126위

- 탄자니아는 주요 인프라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 등의 사회 개발 투자에 2021/22회계연도 예산의 38%를 집행한 데 이어, 2022/23회계연도에도 예산의 36%를 편성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지수(Afric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AIDI) 2020에 따르면 ICT 및 상하수도 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탄자니아의 AIDI 순위와 점수*는 조사대상 54개국 중 2018년 43위(12.543점), 2019년 41위(14.110점), 2020년 40위(14.891점)로 점차 상승하고 있음.

* 최하 0점~ 최고 100점

정치안정

하산 대통령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전망

- 2020년 10월 재선에 성공한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2021년 3월 오랜 질병으로 서거함에 따라 사미아 솔루후 하산 부통령이 탄자니아 헌법에 따라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탄자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현재 집권 여당(CCM: Chama Cha Mapinduzi)이 의회 의석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산 대통령 행정부는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25년 10월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EIU는 불법집회 혐의 및 테러선동 혐의로 제1야당(Chadema)의 당대표(음보웨*) 및 당원을 체포하는 등 야권에 대한 억압으로 야권의 간헐적인 저항이 예상되나 정치안정성을 저해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함.

* 음보웨 대표는 2015년 중단된 개헌 논의(대통령 권한 축소, 3권 분립,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 간의 입법권 조정 등)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해왔음.

잔지바르 자치정부의 자치권 확대 요구로 인한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야기 가능성 존재

- 탄자니아는 본토(옛 명칭은 탕가니카) 중앙정부와 잔지바르 자치정부가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현재 개헌을 요구하는 야권의 세력이 미약하고 여당의 탄압 등으로 잔지바르 자치권 확대 등이 포함된 개헌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헌 중단을 선언하는 경우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잔지바르 자치정부로부터의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음(IHS Markit).

사회안정

종족·종교 간 큰 갈등 없이 사회안정 유지

- 탄자니아는 다양한 종족* 및 종교**가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두드러진 종족·종교 간 갈등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130여 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인 99%, 기타 1%

** 본토: 이슬람교(35%), 토속종교(35%), 기독교(30%) / 잔지바르: 이슬람교(99%)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가능성 존재

- 탄자니아는 전통적으로 동아프리카 역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종종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인접한 모잠비크에 존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음.
- 모잠비크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2017년 천연가스가 풍부한 모잠비크 북부에서 공격을 시작, IS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으며 한때 모잠비크의 주요 항구 도시를 점령하는 등 과감한 습격을 감행함. 이들은 2020년 10월 탄자니아의 경찰서를 공격하고 주민들을 살해하는 등 탄자니아에도 위협이 되었음.

사회안정

- IHS Markit은 2021년 8월 모잠비크에 대한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및 르완다의 군사적 지원 이후 모잠비크에 있던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탄자니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나, 탄자니아 정부의 면밀한 감시 속에 이들이 탄자니아에 심각한 테러 위협을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함.

Moody's는 탄자니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4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환경, 사회위험, 지배구조 위험 등 모든 요인이 탄자니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자니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 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기후조건에 취약한 농업 및 수력발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탄자니아는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와 반복되는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아울러 최근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탄자니아의 수자원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높은 빈곤 수준과 소득 불균형, 의료·복지 및 교육을 포함한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탄자니아의 사회위험은 높은 수준임. 또한, 높은 수준의 영양실조 및 미취학 인구 규모는 인적자본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여 탄자니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탄자니아의 정책에 관한 예측 불가능성은 정책의 효과성과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고 분석하며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을 대신하여 부통령 재임 시절 유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에 다수 참석하였으며, 여러 외교행사를 주관한 점 등에 비추어 노련한 외교수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음.
- 실제로 하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및 해결책을 제언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와의 협력 강화, AfCFTA 비준 등 국제적 위신의 회복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내륙과 인접국을 연결하는 표준궤 철도 건설, 우간다-탄자니아를 잇는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 주요 경쟁국인 케냐와 각 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2021년 5월)하는 등 역내 통합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임.

서방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 강화

- 탄자니아는 국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주요 재원을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중요시함.
- 세계은행은 탄자니아에 2021년 918백만 달러, 2022.1~7월까지 1,79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IMF는 2021년 567백만 달러, 2022.1~7월까지 1,046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탄자니아 앞 재정·기술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승인액 기준).
- 한편,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⁴⁾과 같은 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국, EU 등 전통적 협력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⁵⁾을 기반으로 탄자니아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바가모요 항구, 표준궤 철도, 석탄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외에 개발원조를 통해 상수도, 공공의료, 교육 부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4)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구성된 다자간 대화기구로,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3년마다 열리고 있음(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22년 3월 말 기준 탄자니아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잔액은 2,384백만 달러(단기 142백만 달러, 중장기 2,242백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 잔액은 4.0%에 해당하는 97백만 달러임. 상환대상 원리금 잔액 중 일부를 연체 중이나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액이 없고, 재조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중으로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22.07)	6등급(2021.06)
Moody's	B2(2020.08)	B1(2019.08)

Moody's는 2020년 8월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Moody's는 2020년 8월 열악한 거버넌스로 인한 국가신용위험 증가로 탄자니아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특히, 정부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탄자니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매력도와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부담 및 유동성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OECD는 2005년 이후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농업, 서비스업, 제조 및 건설업 등 산업 전반의 고른 성장을 통해 2021년 4.9%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표준궤 철도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2022년에도 4.8%의 플러스 경제성장이 전망됨.
- 공적채무 원리금 상환, 대형 인프라 투자,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2021년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사회개발 투자 등으로 2022년에도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업의 부분 회복에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2021년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변이 등으로 인한 관광업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본재 및 정제유 수입 증가 전망 등으로 2022년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로 인한 필요 재원을 대외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채부담이 높은 편이며, IMF는 2021년 9월 탄자니아의 외채위험을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상향 조정함.